

ECONOMICS NEWSLETTER

제 20 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오성환 / 편집인 : 이철희 / 편집조교 : 유원석

국제 경제제도 워크샵 개최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Workshop

경 제학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2008년 9월 18일(목)~19일(금) 양일간에 거쳐 본교 호암 교수회관에서 '국제경제제도에 관한 워크샵(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WTO/FTA를 포함한 국제무역질서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저명학자들을 초청하여 국제경제제도와 관련된 10여 편의 논문발표/논평을 진행하였다. 특히 스탠포드大(Stanford University)의 로버트 스타이거(Robert Staiger) 교수, 컬럼비아大(Columbia University)의 카일 벤웰(Kyle Bagwell), 페트로 메로아디(Petros Mavroidis) 교수, 프린스턴大(Princeton University)의 헬렌 밀너(Helen Milner) 교수, 예일大(Yale University)의 지오바니 매기(Giovanni Maggi) 교수 등은 이 분야의 석학으로 꼽히는 학자들이다. 이들은 WTO 협상방식이 주는 의미, MFN조항의 문제점, 환경규제의 문제, 분쟁해결절차가 협상에 주는 의미, 역외 중간재 무역 증가의 의미, 국제무역협정의 혜택,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치 등의 빈번한 사용으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후퇴 등에 대해 4개 세션을 통해 주제를 발표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워크샵이 끝난 후 모든 참석자와 함께

서울대,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서울대가 아시아 국가 대학을 상대로 한 종합평가에서 8위를 차지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최근 발표된 QS의 「세계 최고대학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에서는 도쿄대가 1위, 서울대가 북경대와 공동 8위임을 밝혔다. 특히 QS의 「세계 최고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학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본교가 세계 33위, 아시아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SJE-KERI-KIF 국제심포지엄 개최

우 리학부 경제연구소(SJE)는 한국 경제연구원(KERI), 한국금융연 구원(KIF)과 공동으로 2008년 11월 27 일(목)에 본교 국제대학원 소천국제회 의실에서 '제16회 SJE-KERI-KIF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동아시아의 생산성, 경제성장 및 무역(Produc tivity, Growth and Trade in East Asia)'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리학부의 표학길 교수를 비롯하여 미시간 주립大(Michigan State University)의 피터 슈미트(Peter Schmidt), 크리스틴 암스러(Christine Amsler) 교수, 라이스大(Rice University)의 로빈 식클스(Robin Sickles) 교수 등 여러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신행 교수 정년퇴임

경제학부에서 지난 33년간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 왔던 김신행 교수 가 2008년 8월 정년퇴임 하였다. 경제학을 "사회적인 공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는 김신행 교수는 본교 법학부에 입학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미국 컬럼비아大(Columbia University)에서 1965년 경제학 학사, 1970년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김신행 교수는 1975년 조교수로 본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2008년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론, 국제경제론 등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문제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기여하였고, 상당수의 제자들을 이 분야 경제학자로 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한국경제학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 국제경제학회 회장직을 맡아 국내 경제학자들의 연구교류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사회과학대학의 무역학과장, 본부 교무부학장 및 경제연구소장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하였다. 김신행 교수는 재직기간 동안 4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국제경제론', '경제성장론' 등 대표적인 관련분야 서적들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경제학부 학술행사

제5회 동경대 – 서울대 공동학술대회 개최

경 제연구소(IER)는 동경대학교 일본경제 국제공동연구센터(CIRJE)와 공동으로 '제5회 동경대–서울대 공동학술대회(The Fifth Joint Conference of the University of Tokyo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를 2008년 11월 14일(금), 경제학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용(Applications of Economic Theory and Empirics to Global Issues)'을 주제로 경제연구소 소장인 경제학부 전영섭 교수와 CIRJE 소장인 동경대(University of Tokyo) 경제학과 신이치 후쿠다(Shinichi Fukuda)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리학부 이철희, 박지형 교수, 동경대(University of Tokyo)의 홀렌 에스테반–프레탈(Julen Esteban-Pretel), 야수유키 사와다(Yasuyuki Sawada), 주니치 후지모토(Junichi Fujimoto) 교수가 각각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금융경제연구원 개원기념 강연회 개최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은 2009년 초 정식 개원을 앞두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각성과 한국 경제의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하

여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이현재 전 재경부총리(사진왼쪽)와 금융위기 분야의 전문가인 미국 프린스턴대(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과 신현송 교수(사진오른쪽)를 초청하여 11월 28일(금) 오후 2시 국제대학원 소천국제 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현재 전 부총리는 현재의 위기가 지나온 세월동안 누적되어온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언급하였다. 신현송 교수는 한국정부 환율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금융시장에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 모두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내금융을 국제금융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정책은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학제 간 및 국제협력 연구를 통하여 금융제도 발전 및 금융위기 예방 등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수행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근 교수 「서울대 학술연구상」 수상 기념 특별강연회 개최

경제학부는 이근 교수의 『서울대 학술연구상』 수상을 기념하는 특별강연회를 2008년 12월 2일에 개최하였다. 이근 교수는 특별 강연회에서 '추격의 경제학,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추격(Economics of Catch-up and Catch-up as an Economist)'이라는 주제로 후발국과 후발기업이 어떠한 조건에서 선발국과 선발기업을 추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동시에 경제학자로서 연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추격'이라는 틀로써 어떻게 하면 경제학에 있어서 학문적 후발상태인 우리의 경제학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다.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고 있는 이근 교수 ▶



김신행 교수 정년기념 『고별강연회』 및 『논문봉정식』 개최



경 제학부는 김신행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 9월 9일(화)에 본교 박물관 강당에서 『고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김 교수는 동료교수와 학부 및 대학원생 등이 참석한 고별강연회에서 자신의 학문세계와 연구분야를 압축한 '경제학에서 시간의 문제 : 마샬- Hicks-프레스콧'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30여년 넘게 연구해 온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경제학부는 같은 날 저녁 본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김신행 교수의 정년기념 『논문봉정식』을 주최하였다. 논문봉정식에는 가족, 동료 및 선후배, 제자 등이 참석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년퇴임을 축하했다. 김신행 교수는 "그동안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자는 자세로 연구와 강의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30년 넘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 교수들과 뛰어난 학생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퇴임 후에도 이전부터 해 왔던 연구를 더 깊게 진행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수수상

이승훈 교수 『다산경제학상』 수상



경제학부 이승훈 교수가 2008년 10월 7일, 제27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다산경제학상은 다산 정약용선생의 경제제민 정신과 실학사상을 기리며 한국의 올바른 경제학풍을 정립하고 고양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상이다. 이승훈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재벌의 역할과 부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상을 수상했다. 이승훈 교수는 1976 미국노스웨스턴大(North wester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1977년부터 본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미시경제이론과 산업조직론 등을 강의하며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근 교수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경제학부 이근교수(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교수들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본교에서 제정한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은 5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수(기금교수 포함) 중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교수를 선정하여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서울대를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2007년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선정한 '국가석학'에 이름을 올렸던 이근 교수는 경제발전론과 경제체제론을 기반으로 '경제추격론(Economics of Catch-up)'이라는 자신만의 연구주제에 일관되게 매달려오며 국내외 유수 학술지 및 저서를 통해 많은 연구업적을 낸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교수는 추격이론을 중국사례에도 적용해 중국의 연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주목 받고 있다.

진과 공저)이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우수논문 사후지원 대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1954년부터 1989년까지 북한경제와 소련경제의 장기생산성을 비교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추정결과 북한의 GDP와 일인당GDP는 위 기간 동안 연평균 각각 4.4%, 1.9%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1960년대 초부터 이미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패널공적분 방법을 이용한 추정결과, 북한경제의 생산성은 소련에 비해 33% 낮았다. 이 논문은 국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북한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추정, 제시함으로써 장기통계가 매우 부족한 북한경제의 데이터인프라 구축과 향후 연구 유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007년 7~9월 동안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의 논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논문 중 하나였다.

김병연, 이근 교수 학진 우수논문 사후지원대상



2008년 12월에 김병연(왼쪽), 이근(오른쪽) 교수의 논문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Estimates and Growth Accounting Analysis' (김석

2008학년도 우수강의상 및 우수연구 교수 경제학부는 2008년도 우수강의교수로 김재영, 류근관, 박지형 교수를, 우수연구교수로 김병연, 이근, 이철희 교수를 선정하여 추천하였다. 우수강의 교수는 2008년도 1,2학기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우수연구교수는 최근 5년간 국제 유수저널에 발표한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교수동정



오성환 교수

경제학부 학부장 취임

오성환 교수가 2008년 8월, 2년의 임기로 경제학부 학부장에 취임하였다. 오성환 교수는 1987년도에 미국 브라운大(Brow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991년 3월에 경제학부에 부임하여 학부와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 및 화폐금융론을 강의하고 있다.



정운찬 교수

금융경제연구원 초대원장

정운찬 교수가 2009년 정식개원을 앞두고 있는 본교 금융경제연구원의 초대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서울대는 세계 금융위기 등 급속히 변화하는 금

융 및 경제 환경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대응하고자 금융경제연구원을 설립한다. 관련 학문 분야간의 유기적인 연구를 위해 경제학부를 비롯해 공대, 자연대, 경영대, 법대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연구진을 구성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국가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이러한 성격의 금융경제연구원을 설립하고 있다.



김재영 교수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회과학대 교무부학장을 맡았던 김재영 교수가 2008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년간 사회과학대학의 교무부학장을 다

시 맡게 되었다. 김재영 교수는 1995년도에 미네소타大(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2002년 8월에 경제학부에 부임하여 경제통계학과 계량경제학을 연구하며 학부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교직원 수상

경제학부 사무실에서 장학 및 졸업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이씨가 2008년도 하반기 『서울대 친절으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서울대 친절으뜸상』은 서울대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친절한 직원을 포상하여 격려하고자 2007년도에 제정한 상이다. 2008년 하반기에는 인터넷 추천제를 통하여 91명의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3단계의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우리 경제학부는 2006년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Brain Korea 21)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김태성 세미나 18회 ▲ Brown Bag Lunch 세미나 11회 ▲ 단기연수지원(대학원생 3회, 신진연구인력 2회, 인솔교수 1회 지원)

아래는 2008년도 하반기 BK21 사업단의 상세한 활동 내역이다.

김태성 세미나(2008년 하반기)

경제학부는 매학기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아래는 2008년 하반기의 세미나 주요일정이다.

Manipushpak Mitra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Group Strategy Proofness in Queueing Models

김진영 (고려대학교)
Patent Portfolio Management of Sequential Innovations

김봉근 (성균관대학교)
Measurement Error in Long-Term Retrospective Recall Surveys of Earnings

Eric W. Bond (Vanderbilt University) Trade Costs and Multimarket Collusion

채수찬 (Rice University, 서울대수학과초빙교수)
Group Bargaining Solution

김정옥 (University of Alberta School of Business)
Characteristics of Observed Demand and Supply Schedules for Individual Stocks

Larry Qiu (University of Hong Kong)
Globalization, Capital Market and Endogenous Firm Structure

Alessandra Guariglia (Nottingham University)
The More the Better? Foreign Ownership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China

송의영 (서강대학교)
Trade and the Speed of Convergence

Choi Sungjoo (University College London)
Network Architecture, Salience and Coordination

노정녀 (연세대학교)
The Effects of Industrial Systems on Technology Adoption

도태영 (FRB of Kansas City)
Long Run Risks in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 Estimation

김남석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mpact of Extreme Climate Events on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from Cross Section Data and Welfare Projection

Yupana Wiwattanakantang (Hitotsubashi University)
Adoptive Expectations : Rising Son Tournaments in Japanese Family Firms

Hayong Yun (University of Notre Dame)
The Real Effects of Derivative Markets: Evidence from Electric Utilities

Claire S.H. Lim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Turnover and Accountability of Appointed and Elected Judges

Edward Vytlacil (Yale University)
Instrumental Variables and the Sign of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이수형 (The University of Maryland)
Preferences and Choice Constraints in Marital Sorting: Evidence From Korea

Brown Bag Lunch 세미나

경제학부 BK21 사업단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여대학원생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Brown Bag Lunch' 세미나를 시행하고 있다.

제20회
정선영(박사과정:1팀)
Data and Productivity Estimates of the 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

김대현(박사과정:1팀)
20세기 전반기 여성노동과 공업화 – 공장센서스 분석

제21회
김윤지(박사과정:2팀)
The Linkage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and the Firm Performance

제22회
전은경(박사과정:1팀)
세금요소 고려한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자 비용 추계

라미령(박사과정:4팀)
Vertical Integration for Reputation Building

박지희(박사과정:6팀): Dynamic Asset Allocation with Event Risk by Weighting Function

제23회
박종훈(박사과정:2팀)
Market Demand and Catch-Up by Heterogeneous Firm–An Evolutionary Economics Simulation

제24회
김지연(박사과정:2팀)
Do Firm Acquisition Activities Increase the Target Firm's Performance and Value?

제25회
이근기(박사후과정:2팀)
기업집단 계열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새로운 지표

이재형(BK21부교수:2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재벌기업 집단군별 비교

제26회
김부용(박사과정:2팀):
Inequality and Growth Revisited: Evidence from China

김이경(박사과정:2팀)
Knowledge and Economic Catch-up

제27회
정선영(박사과정:1팀)
자산부문별, 산업부문별 자산스톡 추계 (1970-2006) – KIP Database 2008

제28회
최상오(BK21부교수:1팀)
수출지향공업화와 정부의 역할–수출진흥학대회 사례

최미강(박사과정:2팀)
지주회사전환과 기업지배구조

BK21 특별세미나

John Riew (Penn State University)
Japan's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Global Market

Kazu Motohashi(Tokyo University)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Japan by Productivity Analysis",

정무섭(SERI), **이근**(교수, 서울대학교)
Sectoral Innovation System and Productivity Catch-up by the Korean Firms with the Japanese Firms

BK21사업단 단기연수 지원

워크샵 참가지원

표학길(교수 : 1팀)
일본/도쿄 2008 Japan–Korea Industrial Database Workshop 참가

정선영(박사과정 : 1팀)
일본/도쿄 2008 Japan–Korea Industrial Database Workshop 참가

논문발표 지원

김이경(박사과정 : 2팀)
스위스/베른 2008.10 Appropriat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conomic Growth in Countries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Y.K.Kim ,K.Lee, W.G.Park

이재형(BK 21부교수 : 2팀)
미국/뉴욕 2008.11.6~8 The Effect of Transparency on Business Performance:Evidence Using Cross-Korea's Chaebol Panel Data

라미령(박사과정 : 4팀)
미국/콜럼버스 2008.10.3~5 Vertical Integration for Reputation Building

강영삼(연수연구원 :2팀)
대만/타이베이 2008.12.14~16 Business groups in China

홍재 군에게 보내는 편지



이준구 교수

* 이글은 지난 19호 소식지에 동문 기고글을 올려주신 아주대학교 이홍재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 이준구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O 제 어엿한 중견 교수가 된 사람에게 ‘군’이라는 호칭을 붙여 미안하네. 그렇지만 새삼스레 ‘교수’라고 부르려니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정답지도 않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예전에 늘 하던 대로 자네를 ‘홍재 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네. 한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니까 내가 그렇게 불러도 괜찮겠지?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해 주게. 바로 고쳐서 부를 테니.

먼저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부터 밝혀야 하겠군. 지난 번 이 소식지에 자네가 올린 글에서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자네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오랜만에 자네를 보고 던던 첫 마디가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군.”이었다던가? 지금 난 잘 기억이 나지 않네만. 하여튼 자네는 그것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말로 해석했고.

구구한 변명을 하지는 않겠네. 솔직히 말해 그런

뜻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의 그 앳된 모습이 어디로 갔느냐는 뜻이었네. 내가 기억하기로 유학을 떠나기 전 자네는 유달리 볼이 빨가스래한 미남 청년이었네. 그런 자네가 40대의 중년으로 내 앞에 불쑥 나타나니 놀랍지 않을 수밖에. 그 순간 불현듯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탄식이 흘러나온 것일세.

내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데, 자네가 사은회 때 나와 팔찌를 하지 않았나? 언젠가 사은회 때 학생들과 팔찌를 했던 기억이 나네. 학생 두어 명을 꺾고 의기양양해 하던 차에 어떤 친구에게 참패를 당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네였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자네 석사논문 발표 때 내가 크게 칭찬해 준 적이 있네. 당시의 나는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터라 칭찬을 받고 오히려 놀라는 모습이더구만.

지난 가을 나 역시 옛 스승에게 주책없이 나이든 모습을 보여 드려 놀라게 만든 적이 있다네. Princeton대학을 방문했을 때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Alan Blinder 교수를 만나뵌 거야. 1980년 박사학위를 받고 떠난 후 처음 뵙는 것이니 28년만의 해후였지. 그때는 예전의 자네처럼 나도 갓 서른의 꽃다운 청년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반백의 중년이 되어 불쑥 나타나니 놀라시는 게 당연하지.

심포지움에서 강연하러 오신 분 앞에 갑자기 나타나 “Do you remember me?”라고 외쳤어.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오신 동양분이신가?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시더군. 잠시 멈

칫하신 후 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더니 그 때야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며 반가워하시는 거야. 그 때 스승의 따뜻한 손길을 처음 느꼈지.

그 분을 자세히 바라보니 예전보다 엄청나게 나아 들어 보이시는 것 아니겠어? 내가 나이 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생각만 들더군. 더군다나 얼굴이 상당히 수척해 보이셔서 조금 가슴이 아프데. 얼마 전에 편찮으셔서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지라. 그 후 연구실로 찾아뵈니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위트가 넘치시고 사회비판도 날카롭게 하시더군. 그 분의 진보적 자세를 예전부터 흡모해 왔던지라 그 말씀들이 너무나 좋았다네.

홍재군, 자네는 이제 인생의 절정기에 와 있다네. 혹시 스스로 나이 먹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일부러 이 말을 하는 것일세. 지금 내 나이가 되면 자네 만한 나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 나이면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 항상 젊고 원기 있게 생활하도록 하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으면 그것을 부지런히 쫓도록 하고,

올해로 내가 교수 생활 시작한 지 29년이 되네. 한 한기 한 학기 보내다 보니 벌써 그렇게 되었어. 교수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자네 같은 제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일세. 스승과 제자 사이 관계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결부되지 않는 순수 그 자체가 아닐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는 다른 데서 찾기 힘드네. 우리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고이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네.

신임학부장 인사말

동문들께 인사드립니다

선 배 후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오성환 교수입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하여 1천 명이 넘는 대규모 학부인 경제학부의 학사행정을 원활히 하고 교육과 연구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막중한 책임을 다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동료 교수와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사정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매번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언론을 비롯해 모두가 우리 경제학자들과 학도들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나쁘게 말하면

희생양이 되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일반인들 마음의 위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즉 경제학자들도 모르는데 일반인이야 당연히 모르지 않겠나 하는 위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경제학부 동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로는 화합·화목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들 말은 주위 사정이 좋든 나쁘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어려울 때 특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선배는 후배를 다독거리며 이끌어가고 후배는 선배에게 존경심을 갖고 지도를 받고, 동년배들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만큼 보기 좋고 강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학부만큼 동문들이

다양한 직업과 직위에 퍼져 있는 학과나 학부는 서울대학교에서도 드물 것입니다. 이같이 방대한 네트워크를 화합·화목을 내세우며 활용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포함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성환 신임학부장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경제학부 동문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동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56학번의 晚學의 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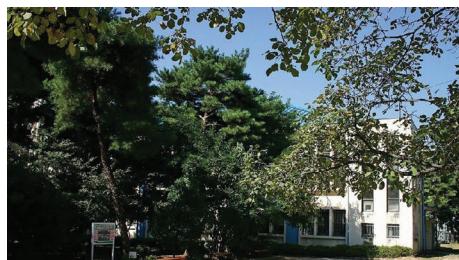


채 수 한

경 제학부에서 보내주는 ECONOMICS NEWSLETTER 고맙게 받아 보고 있다. 나는 종암동에 있는 상과대학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당시 상대는 종암동 밭 가운데의 소나무 숲 속에 세워진 초라한 건물이었다. 그래서 가끔 동승동의 문리대에 들릴 때면 그 아카데믹한 캠퍼스환경에 무척 부러움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경제원론강의를 담당하시던 최호진 교수께서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계셔서 속대와 이대에 학회지를 돌리려 다녔던 기억이 새롭다. 말하자면 경제학회지 초기 홍보요원이었던 셈이다.



얼마 전 시내 한 호텔에서 상대 '56학번'의 지난 50년 세월동안 각자의 사연을 담은 회고록 종암동 '송림(松林)의 정기(精氣)' 출판기념회를 가진 바 있다. 6.25직후의 그 어려운 시절의 종암동에서 지내온 학창시절의 각자 회고와 60~70년대 개발시대를 바쁘게 살아온 세대로서 정년후의 최근 생활이야기로 꽂피운 일이 있다(서울상대 56학번의 '인생2막', 매일경제 2008년 06월 18일 참조).



나는 현재 겸임교수 직함을 가지고 경원대 IT대학에서 젊은이들 틈에 끼어 소일하고 있다. 내가 전공도 아닌 computer science분야에 무모하게 뛰어 들어 70대 늦깎이 학생으로서 주책없

는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는 좀 길다. 30년 혼직생활을 마치고 나서도 또 30년이 남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남은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정년 후 KDI연구위원으로 몸담은 일이 있었다. 이곳은 옛 50년대 학창시절 자주 들리던 학교 옆의 임업시험장으로 지금도 주위경관이 아주 아름답다.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KAIST주변까지 한 바퀴 도는 산책로를 둘러보면서 책을 보는 습관을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일이 있었다.



일단 대학원에 입학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학교는 분당 집에서 전철로 2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원대학교를 택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대학교의 어느 교수실을 찾아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의향을 이야기 했다. 처음엔 거절을 당했으나 되풀이 부탁을 한 끝에 일단 등록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하려고 보니 Java, C++같은 컴퓨터 언어를 읽히는 것이 장난이 아니어서 거절했던 교수생각이 났다.

나의 주책없는 짓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언젠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니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컴퓨터조작경연대회가 예고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내로라하는 그 많은 전국 네티즌들과의 다툼에서 탁상시계를 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컴퓨터 솜씨 자랑을 하면서 청와대 마크가 새겨진 기념시계를 넘겨주는 재미는 학교 등록금이 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평생을 금융정책분야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달나리를 여행하는 느낌으로 들

여 놓은 발걸음이었다. 새로운 분야에 내가 공부한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어 내 나이에 부질없는 짓이지만 노인정 출입보다는 낫지 않았나 싶다. 인공지능기법에 의한 경기변동예측을 시도한 나의 논문은 일본 경도대학에서 주최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Full paper로 수상통보를 받았다. 젊은이들 틈에 노인 학생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주책없는 짓이지만 발표라는 것도 해보았다. 또한 한국퍼지 및 지능학회의 저널에의 게재와 한국경제학회의 The Korean Economic Review에의 게재라는 분에 넘치는 배려도 받은 바 있다. 초기 경제학회지 홍보요원의 협력을 50년 후에야 본 셈이다.

바야흐로 학제연구(interdisciplinary study)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대를 맞아 경기예측의 공적 담당기관인 한국은행과 KDI로부터 발표요청을 받는 등 한동안 바쁜 일정을 보내왔다. 그리고 70대 만학의 공학박사학위가 인연이 되어 IT분야와 경제 분야의 convergence를 시도하는 과목인 data mining in finance를 맡아 젊은이들과 소일하고 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학교 강단에 서면서 정년퇴직제도가 일리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굳어졌다. 새로운 정보화시대는 역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들의 몫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술뉴스를 주로 담는 경제학부의 뉴스레터에 어울리지 않는 글이란 점을 알면서도 혹 바쁜 연구 활동의 여가에 가벼운 읽을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원고지를 메워보았다.

〈주요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1960)
- 경원대학교 공학박사(2007)
- 한국은행 국장, 런던사무소장 등 역임
- 전북은행 상무이사 역임
- 대한투자신탁 사외이사 역임
- KDI연구위원 역임
- 현 한국은행 자문교수
- 현 경원대 IT대학 겸임교수

알립니다

경제학부 소식지에 전하실 내용이 있으신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전해주시면 다음번 소식지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담당자 이메일: brhams@snu.ac.kr



SNU Financial & Economic Research Seminar

SFERS (SNU Financial & Economic Research Seminar : 서울대학교 금융·경제 연구 세미나)는 2000년 11월 16일 창설되어 2001년 1월 5일 첫 세미나를 가진 아래 경제학부 황윤재 교수님의 지도 아래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부 최대의 학술연구동아리입니다.

경제학부 재학생들을 주축으로 하여 서울대학 전체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회원간의 학술 교류 및 협동을 통한 연구 수행으로 금융 및 경제 지식을 증진하고 전문가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과 더불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 휴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 학기 세 차례의 정기 세미나와 동경대학, 북경대학, 칭화대학 등과의 연례 Joint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외 다양한 친교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FERS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인 정기세미나는 2008년 2학기에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1팀 :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클러스터의 경제성 분석

경제 2팀 : 교육평준화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금융 1팀 : 금융신상품 연구 및 개발 – 날씨옵션

금융 2팀 : 유가 및 선물시장 분석

또한 국내외 유수의 대학들과 함께 하는 Joint 세미나 역시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2학기에는 한·일 7개대학 경제포럼(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동경대, 와세다대, 게이오대)에서 서울대의 대표로 SFERS가 참가하여 ‘외환위기 초기 경보 모델’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에도 북경대학 NEASEN 과의 제3차 교류세미나 (2009.2.14) :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한·중 금융제도 (금융감독제도와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칭화대학 FATH 와의 제4차 교류세미나 (2009.2.17) : <“한·중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기업집단의 기능 및 역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우수학생들과의 교류는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어 동아리 회원들로 하여금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서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저희 동아리 회원들은 이러한 동아리 내에서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대회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내어 동아리와 학교를 빛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1년간의 수상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1월 – 전인용 외 3人 : 제4회 KRX 증권선물 경시대회(우수상), ▷ 2008년 11월 – 황정빈 외 2人 : 제 23회 매일경제신문 대학생 경제논문 공모(우수상), ▷ 2008년 11월 – 최보라 외 1人 : 제 23회 매일경제신문 대학생 경제논문 공모(작가), ▷ 2008년 8월 – 이문섭 외 3人, 제6회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최우수상)▷ 2008년 3월 – 홍석준 외 1人, 제1회 씨티-카이스트 우수금융논문공모전,

동아리하면 학술적인 연구활동 외에도 친목 도모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신입회원들과 함께 하는 첫 행사인 LDT, 땀을 흘리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체육대회, 졸업하신 선배들을 만나는 자리인 홈커밍데이 등의 행사 등이 매학기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2학기부

터는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셔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과 동아리 활동회원들을 멘토-멘티로 연결시키는 커리어 멘토링이 실시되고 있어 회원들이 향후 진로 탐색과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실을 벗어나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연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열린 공간인 SFERS는 학생들에게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갖도록 해줍니다. 패기있는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미래를 향한 꿈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저희 SFERS에 대해 동문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8970-7215 (회장 정호석)

sfers.president@gmail.com

홈페이지 <http://www.sfers.com>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1988년부터 시작되었던 나의 학창시절은 이제 2008년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배움이란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 이기에 배움이 끝이 났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20년 정도의 길다 하면 길기도 한 시간 동안 머물러 왔던 학교라는 울타리를 처음으로 벗어나는 것이니까 일단 새로운 출발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지난 시간에 대한 정리와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다짐을 글로 정리해 보려한다.

취업을 위한 준비는 첫 걸음부터 난관이었다. 진로를 결정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분야를 결정하고 난 후, 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첫 단계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처음 몇 군데의 회사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썼다. 몇 번의 미끄러짐을 겪은 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자만한 마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자신에 대해 난 지금 것 자기소개서의 항목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언급하였지 나를 표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의 소개서를 읽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윤곽이 잡히지 않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던 것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나는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들을 천천히 곱씹어 보며 질문자가 자기소개서를 통해 나의 어떤 모습을 알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자신을 표현하기를 시도하여 보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치관, 인생관, 살아왔던 과정 등등 항목들에 대하여 그저 기계적으로 써내려가지 않고 정말로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동안 너무나도 잊고 살았던, 나름대로 순수했던 삶을 되돌아보고 당시 마음먹었던 인생 목표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부모님께 손을 잡혀 어디인지도 모른 채 끌려가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무엇을 배웠는가? 남들이 배우는 것을 배웠다. 사회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라는 것들을 배운 후, 다시 한 번 영문도 모른 채 내쫓기듯 중학교로 진학하였다. 정신없이 학교와 집을 오가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렵잖게 대학이라는 곳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교를 다닌 것 같다. 내가 스스로의 배움의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도록 해준 곳은 고



김태욱 · 대학원석사

등학교에 이르러서였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인성교육을 중시하던 학교로,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을 통해서 배움이란 것 자체도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에 나는 나를 표현하고 설명함에 있어 '명사(名詞)'로 써가 아닌 '수식어(修飾語)'로 써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해보지 않는가? 내게는 질문의 의미와 답은 명확하지만 삶으로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장이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벼거울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왜 세상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분명하지 않았다. 대학생이 된 나는 그저 하루하루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을 통해 이런 나의 생각이 소극적인 마음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부규제와 공정거래법에 관한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몰랐다. 그러면 외중에 한 학생이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다.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면 깨지듯이 부질없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맞습니다. 부질없는 짓을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위가 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부딪히고 당신 후배가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 바위는 부서질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당신 혼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학생템으로 큰 사건을 일으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가 되기 위해, 그리

고 후대에 지속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인재입니다. 본 교수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나는 고등학교 때 그토록 원했던 나의 수식어를 찾았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다. 그 후로 나는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원에 진학하여서는 치열하게 공부하였다. 그런데 난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있었다. 너무나도 바쁘게 이루어지는 학업생활, 조교업무,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에서 나는 예전에 마음먹었던 바위를 칠 수 있는 계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잊은 채 취업준비를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기로 이른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난 취업에 성공하였다. 최근 아버지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나는 이 책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해주는 인생의 지침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읽어가다가 아버지께서 밑줄을 그어 놓으신 부분을 발견하였다. "일의 시작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에서부터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이나 말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하지만, 즐기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조차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정년을 앞두고 계신다. 그러한 아버지께서 책을 읽어가시다가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부분을 다시 찾은 것 같아 당신도 모르게 밑줄을 긋게 되셨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꿈꾸며 그리던 것들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그러한 꿈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니 그 꿈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은 나의 뜻이며 현재 나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라.

이제 시작이다. 사회로 뛰어나가기 위해 난 한껏 웅크리고 있다. 나와 같이 누군가 또 웅크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디로 뛰어야 할지 다시 한 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얘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멀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잘 뛰는 것도 중요하니까 말이다.

미국에서 얻은 교훈



윤소윤 · 학부4학년

2 2007년 가을, 나는 운 좋게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의 수도 워싱턴(Washington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미국의 대학에서 그곳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내 머릿속에는 손바닥보다 커다란 햄버거나 크리스마스 시즌 80% crazy sale 보다 더 분명하게 남아 있는 기억들 몇 가지가 있다.

나는 미국대학의 자유분방한 수업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시시때때로 formal하게, 혹은 informal하게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오가는 의사소통이었다. 토론형식의 수업도 아닌 일반적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강의 도중 질문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고, 학생들 또한 거리낌 없이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오히려 질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학생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다. 설사 그것이 모두가 알아들었을 만한 기본적인 내용일지라도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확인하면서 넘어간다. 적극적인 의견 표출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끌어나가는 데 의의를 두는 것 같았다. 자유로운 수업분위기 가운데에는 나를 경악시킨 경우도 있었다. 계량경제학(Econometrics) 수업은 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진행하였는데, 수업 중에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화폐금융론(Money and Banking) 강의시간에는 제일 앞줄에 앉은 채 옆에 있는 의자에 다리를 올려놓고 매우 편안한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러한 학생들의 자세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렇지만 타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핸드폰 벨 소리 등에 관한 규율은 매우 엄격했다.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행위는 구속하지 않는 반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에서 나는 자유, 권리 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생들의 복장이 자유로웠다. 남녀 구분할 것 없이 학교 이름이 새겨진 후드티와 편한 운동복 차림 – 심지어는 잠옷바지 차림 – 으로 수업에 들어온다. 화장이나 하이힐,

내면적으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같다.
사랑스러운 후배들이
학부 시절 외국으로 나가 넓은 세상을 보고,
내면적으로 더욱 성숙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치마나 정장자켓은 공식 행사나 금요일 저녁 파티나 주말 약속에만 필요했다. 오히려 꾸미고 수업에 들어오는 것이 어색했다. 나도 처음에는 이러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한 차림으로 캠퍼스를 누릴 수 있었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서 참 편했다. 한국 대학생들의 모습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생활이 가능한 것은 아마도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대학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캠퍼스를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회분위기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건 신경 쓰지 않고, 'my way'를 고수한다. 대신 자신 또한 타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설ぶ른 판단을 자제한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로, 나는 외교학을 복수전공하고 있어서 한국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했었다. 그렇지만 정작 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미국에서 수강했던 한 수업을 통해 인식 할 수 있었다. 그 수업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라는 수업이었다. 수업제목 그대로 동아시아 지역의 관계를 다루는 수업이었는데 중국과 일본만이 주요 논점이었다. 한국은 관심 밖의 대상이었으며 대만과 더불어 한 시간 반 정도 논의된 것이 전부였다. 이 수업만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국제정치학 분야의 수업도 대부분 비슷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 수업들을 통해서 쓰디 쓴 현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들었던 수업을 통해서 내가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의 미국생활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잘 보여주었다. 한국의 대외적 관심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적었다. 우리나라 언론의 국제뉴스에는 미국에 대한 기사가 빠지지

않지만 미 언론에서 한국이 이슈가 된 적은, 북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았다. 미국인들 역시 중국이나 일본은 알지만,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강대국과 약소국의 국력 차이에서 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의 상처와 묘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어느새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나는 나도 모르게 한국의 국력신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일념으로 뜰뜰 뭉친 애국자가 되었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겪은 문화적, 정치적 충격과 경험은 다시 생각해 보아도 실감나게 느껴진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외국에 가서 그곳에서 직접 생활함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외국이라는 공간적 이동에 따른 환경적 변화가 가져다주는 생소함 이외에 한국에서라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인식조차 못하고 지나쳤을 사소한 일들도 외국에서는 심각한 장벽일 수 있다. 유학생 선배 한분은 자신이 유학 전에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는데 유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했다.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사에 직접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어야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같다. 사랑스러운 후배들이 학부 시절 외국으로 나가 넓은 세상을 보고, 내면적으로 더욱 성숙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제52대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경제학부 박진혁 학생



52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실천기능」 선본의 박진혁(경제학부 4학년 사진) 학생이 45.2%의 득표율로 서울대학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연장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총 유권자 16,004명 중 8,514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53.2%를 기록했다.

학생수상 및 장학금

장학금 수여

2008년도 2학기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713명 중 253명(전액 장학금 9명), 대학원생 38명이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향상 장학금을 통해 20명의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 68명이 수혜를 받았다.

2008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장학증서 수여식

김병연 부학부장은 교내 동원생활관에서 오현정 학생 이외 9명의 성적우수자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제16회 중소기업 연구논문 및 체험리포트

최우수작 및 우수작 수상

2008년 10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헤럴드경제 신문,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제16회 중소기업 연구논문 및 체험리포트 현상공모』에 참가한 우리 경제학부 학생들이 연구논문 분야에서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수상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은 이해진(경제학부), 황지수(경제학부 졸업, 현재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재학 중) 학생의 '고급 소비재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성공전략-지식의 암묵성과 전유성을 중심으로',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은 경제학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윤지 학생의 '중소기업의 성장 패러다임의 재검토-대기업과의 Linkage-Leverage-Learning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이다. 최우수작과 우수작에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2008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

최우수상 수상

2008년 8월에 개최된 『200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경제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Econholic팀(경제학부 안기혁, 이정민, 이문섭, 유주형)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제학부 김재영 교수의 지도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Econholic팀은 전국 52개 대학교 76개팀이 참가한 예선대회를 거쳐, 8월 22일(금)에 한국은행 본부에서 펼쳐진 결선에서 최우수팀으로 선발되었다. 대회 참가팀들은 각종 경제 및 통화정책 관련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제현황과 물가동향을 분석하여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다른 팀과 경쟁했다.

2008년도 제7회 김태성 논문장학금

경제학부에서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우수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태성 논문장학금을 1998년 재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박사과정 김명록, 정문영, 석사과정 김지운, 오지연, 학사과정 이형구, 이정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박사과정 김명록 학생은 '증권화가 서브프라임 boom-burst cycle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정문영 학생은 '한국기업의 외국기술도입과 기업성과(1974-1993)'라는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08년도 2학기 개설 영어진행 강의

Introductory Statistics for Economists / 김재영

Studie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Growth / 이 균

Mathematics for Economist,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 이상승

Studies in Economic Growth / 이지순

Human Life and Economy / 김병연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 박지형

교무 및 학생활동

2007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07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008년 8월 28일(목) 11시에 문화관 중강당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식에서 경제학부는 학사 61명(최우등 졸업 9명, 우등졸업 23명), 석사 24명, 박사 5명을 배출하였다.

2009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

2009년도 3월에 입학하는 전기대학원 모집에서 경제학부는 석사 49명, 박사 11명을 모집하였다. 석사과정은 필기와 구술고사, 박사과정은 서류와 구술고사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이번 학기에 두 과정 모두 높은 경쟁률을 보여 우수한 학생들을 최종선발하였다.

2008학년도 대학원 체육대회

경제학부 대학원 자치회는 11월 7일(금)에 대학원 체육대회를 주최하여 5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관악산에 오르며 학업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200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경제학부는 2008년도 동계 계절학기에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경제원론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경제수학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동계계절학기는 약 5주간 진행되었다.

조교인사

경제학부 조교실에서 그동안 입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태욱 조교가 퇴임(2008년 12월 31 일자)하고 황순주 조교가 후임으로 임용(2009년 1월 1일자)되었다.

기타소식

경제학부 후드티 제작

경제학부는 전공진입생 및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경제학부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일치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후드티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사회과학대 1학년 대상 경제학부 설명회 실시

경제학부는 2008년 11월 2009년도 전공진입 예정인 사회과학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학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경제학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과학대학 1학년들이 참석하였고, 이근 부학부장과 김병연 부학부장이 경제학 및 경제학부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미래부자의 첫 경제학

이승훈, 조남현 중앙북스 2008.7

경제학 입문서인『미래부자의 첫 경제학』은 경제 상식에 도움이 될 뉴스들을 찾아내 경제의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하였다. 입문서답게 분업의 경쟁력, 보이지 않는 손, 금융사기, 부당경쟁의 폐해, 무임승차의 두 얼굴,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경제, 상호부조 네트워크 등을 먼저 신문 뉴스의 한 부분을 발췌하여 보여준 후 설명해 나간다. 그런 다음 학생과 교수의 1:1 대화를 통해 해당 뉴스로 얻을 수 있는 정보, 경제에 관해 궁금한 사항, 관련 지식 등을 전수한다. 대화가 끝나면 신문 뉴스와 대화 중 등장한 경제용어를 자세히 해설한다. 날마다 듣고 보면 지만 늘 알쏭달쏭한 경제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국제경제론(제6판)

김인준, 이영섭 다산출판사 2008.8

경제학부 김인준 교수의 국제경제론 제6판이다. 이번 판은 특히 국제경제의 전체적인 흐름과 상호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집필한 책이다. 이를 위하여 전권을 통하는 체계를 먼저 세우고 가능한 한 이 체계에 입각하여 내용을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독자들의 국제경제학적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현실경제를 염두에 넣어 정책문제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다.



국제금융론(제2판)

김인준, 이영섭 울곡출판사 2008.8

김인준 교수의 국제금융론의 개정판이다. 이번 국제금융론 제2판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여러 변화가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개별 기업 차원 및 국가경제 차원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론과 현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자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제도, 정책 등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고 현실에서의 변화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기업의 진화 II

이근, 추기능, 김지연, 김형진, 정무섭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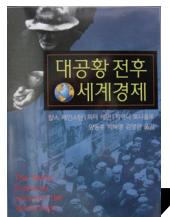
『해방 이후 한국기업의 진화』는 한국에 증권시장이 개설된 1956년부터 50년이 되는 해인 2005년까지의 자료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 1권에 이어 『해방 이후 한국기업의 진화』 제Ⅱ권 〈1956~1977년간의 통계의 구축과 기초분석〉편에서는 1956년 주식시장이 개설된 이후,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기업들의 발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977년까지의 개별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50~1970년대의 기업 성장과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알고보면 재미있는 경제원리

홍기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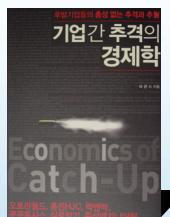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묻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에서 운이 크게 작용한다고 믿는 기업 가가 많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 같은 경험 속에서 우리의 경제인식은 더욱 정밀해지고, 경제학이나 경영관련 서적을 공부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도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경제학자, 경제사상가는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보다 많은 것을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제학부에서 경제학사를 강의하고 있는 홍기현 교수는 이 책에서 이런 고민과 노력 중에서 지금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주제별로 소개하고 있다.



대공황 전후 세계경제

양동희, 박복영, 김영완 역 동서문화사 2008.11

『대공황 전후 세계경제』는 1차대전 발발부터 2차대전이 종결되는 시기의 국제경제 주요사건들을 해설한다.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하게 얹힌 시기들 가운데 하나인 전간기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설명하였다. 1929년 대공황에 대한 통상적 논의를 뛰어넘어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제경제조직의 다양한 형태와 측면이 세계경제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1차 대전 후 부적절한 평화조약으로 인해 발생한 초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국제적인 경제 및 통화의 옛 질서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초래한 경제공황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실업의 외증에서 전례없는 독재체제가 탄생하면서 또 한 차례의 대재앙(2차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 2차대전 종결 후 이어지는 장기호황을 가져온 정책들에 전간기가 미친 장기적 영향 등을 설명한다.



기업간 추격의 경제학

이근 21세기북스 2008.11

이 책은 기업 간에 발생하는 추격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기업 간 추격에 관해 살펴보고, 이 기업 간 추격의 경제학에서는 후발기업이 어떻게 선발기업을 추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후발자의 추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소비재, IT, 인터넷, 조선, 철강, 부품소재 등 여러 분야의 기업 사례 연구를 통해 추격의 발생 시기와 방법, 추격 달성 후의 방어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성공적인 추격의 요건을 소개한다. 추격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난관들을 둘러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까지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추격 이후의 방어 전략과 부문간 차이가 가지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한국과 같은 후발국 기업이 선진국 기업을 시장 점유율 면에서 추격하는 과정을 주로 다룬다.

조순 명예교수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경제학부 조순 명예교수(사진 오른쪽)께서 2008년 10월 동문 또는 서울대 구성원 중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서울대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에게 드리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949년 본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보오든大(Bowdoin College) 경제학과 졸업하신 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大(UC Berkeley)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미국 뉴햄프스리 주립大 조교수를 역임하신 후 본교 경제학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30여년간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의 길을 통해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반 및 우리나라 경제학 교육 기반 조성에 힘쓰셨습니다. 한편 한국 국제경제학회장, 경제기획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서울특별시장, 도산서원 원장, 전통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시



며 평생 이룩한 학문적 성취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봉사하셨습니다. 조순 명예교수님께서는 1972년 제2회 이코노미스트상(매일경제신문사), 1982년 제1회 다산경제학상(한국경제신문사), 1990년 청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서울대경제 최고 전략과정 안내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이미 6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신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P과정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2. 동창회 조직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모집인원	약 40 명
모집안내	①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5) 기업체의 사장급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모집자격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지원절차	TEL : (02)880-5432 Fax : (02)875-9867 e-mail : hee0307@snu.ac.kr Home Page : http://econ.snu.ac.kr/~ecores

ASP 제16기 수료자 명단

강영재 삼성생명 상무
강용구 대한주택공사 상임이사
권용원 기음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권의중 신용보증기금 KODIT 경제연구소장
김영범 (주)케이.이.엘 대표이사 사장
김윤희 동양종합금융증권 상무
김철영 산은캐피탈 재무관리실장
김현수 한국신용평가 상무
김희철 (주)바이타오 대표이사
노순석 한국투자증권 전무

도명국 대우증권(주) 상근감사위원
문기춘 국모남산한증권 리서치 센터장
박상호 대한감정평가법인 심사회사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송호영 우리선물(주) 이사
양동진 재영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선장 한국기스공사 본부장
유명흔 국민은행 경기동영업지원본부 본부장
유태완 (주)동양티피티 대표이사
윤 동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윤우영 한국기업평가(주) 본부장
이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장
이길주 KT 홍보실장
이수화 증권에탁결제원 사업장
이재민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이 철 포스코건설 상무
임경택 한국산업은행 실장
임윤배 삼성회재 상무
정원창 KIS채권평가(주) 상무이사
정유돈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조종식 기업은행 여신관리부 부장
최기훈 변호사 최기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낙민 (주)원우성업 대표이사
최남국 하나은행 신용카드본부장/부행장
최상국 농협중앙회 상무
하태숙 KTF 상무
허덕신 우리F&I 사장
허선무 삼성투자신탁운용 상무
허 준 IBK투자증권 전무
황기현 한국토지공사 중동아프리카 사업단장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 E-mail: kang97@snu.ac.kr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지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mail : brhams@snu.ac.kr ● 전화 : 02-880-6359, 6398 ● 홈페이지 : <http://econ.snu.ac.kr>